

칼럼

황만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 · 한방소아과 전문가



청소년들 비쩍 마르게 하는 '크론병'

보통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질병인 크론병은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서구식 식습관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 등과 함께 소화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이상 면역반응 또는 자가면역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만일 증상적으로는 매우 비슷해 보이는 '만성 장염'이나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오해해 크론병인 것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투병 의지가 없어서 제대로 된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결과는 매우 심각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환자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0년 1만 2770명 수준이던 환자 수가 2014년에는 1만 8509명으로 약 5년 동안 45% 정도가 늘어났다.

사실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크론병임을 미리 잘 알아낼 수 있다. 10대 청소년 크론병은 성인과는 달리 살이 급격히 빠질 뿐 아니라 심각한 성장 장애가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다.

고 체중 감소가 있으며, 평소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많이 하며, 항문 질환(치루)까지 생겼다면 반드시 크론병 검사를 먼저 받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만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10대 청소년 크론병은 성인에 비해서 예후가 별로 좋지 않고 재발이 잘 되며 유병 기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긴 만큼 최종적으로는 결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집중적인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하다.

최근 여러 의료 선진국에서는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양약과 한약을 병용 투약하며 다각도로 증상 개선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 : 체계적 문헌고찰 및 환자군 분석을 통한 진료 알고리즘 탐색'이라는 한의학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중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캐나다 등지에서 시행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한약과 양약의 병용 임상 실험 결과를 메타 분석한 논문인데, 분석 결과 양약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한약을 함께 병용해서 투약했을 때 환자가 관해(寛解) 상태에 이를 확률이 크론병의 경우 67%, 궤양성대장염의 경우 22%가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10대 청소년 크론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임상적 증상들에 대한 체질개선 한약 처방으로는 오령산(五瀉散), 향사명위산(香砂枳芩散), 계비탕(啓脾湯), 삼령백출산(參苓白朮散) 등이 있다.

社說

동계휴가제 취지 살려야

정부가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키로 했다는 기대가 크다.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초과근무시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 겨울 각 부처에 동계휴가제 운영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 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 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권한을 기관장에서 기관별 심사 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업공무원은 현재 32개 부처에 12만1천여명이며, 경찰청 7만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배원 등) 2만6천여명, 법무부 1만2천여명 순으로 많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枇 杷 晚 翠

비파나무 비
비파나무 파
늦을 만
푸를 취

枇 杷 晚 翠

▷ 뜻: 비파나무는 늦은 겨울에도 그 빛은 푸름.

기고

김영우 한국노총 전남상담소장



노동자의 예산을 난도질하지 말라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장면정부가 수립해놓았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박정희군사정부가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차 경제개발(1962~1966)계획은 수입대체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족했던 자금을 독일, 일본 등에서 조달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육성으로 수출을 늘리는데 사활을 다했었다.

하지만,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배출로 노동력을 활용한 경제정책이 성장위주에만 매몰되면서 노동조건개선과 노동자권익향상에는 소홀히 하였다. 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1972~1981년)은 중화학공업, 전자공업발전과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3저 호황으로 고도성장을 이루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말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5천 달러 수준이었다. 신 자유무역으로 촉발된 글로벌산업화세기는 1997년 12월 3일~2001년 8월 23일까지 IMF관리체제를 벗어날 때까지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빼앗고 희생을 강요했으며 그 후유증은 합리화한 명분과 제도개선이란 유령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환경변화를 이룬지 6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정부주도의 대외의존적인 수출주도형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에 의한 경제력집중, 재벌의 성장에 예외 없이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부의독점, 시장의 독과점, 문어발식 투자·투기 등은 산업화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 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구 식민지 국가

중 자산지나계수가 가장 낮았고 중위소득배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상당기간 평등한 나라로 평가 받았다고 한다. 부탄이 국민소득이 낮은 데도 국민행복지수가 높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 1987년 6.29선언으로 잠시 정치경제적 민주화를 이룬듯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면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프랑스경제학자 토마피케티가 자본주의 빈부격차를 비판한내용중 상위 10%의 순자산이 70%, 1%는 절반인25%~30%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역시 최근자료에서 상위 10%가 68%, 하위 50%는 고작, 7%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화초기 소녀들의 노동시간이 19시간, 식사시간 15분, 자각한반에 임금 4분의 1삭감, 감독의 허리띠로 예외 없이 날마다 폭력을 당했다는 이 증언은 1830년 영국하원에서 소녀노동자가 증언했던 내용이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의한 불만으로 자본가와 노동자간 극한대립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하게 된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과거부터 노동자는 세계 어느 나라할 것 없이 천시 받고 무시당하고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지금까지도 투쟁하면서 탄압받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노동자는 자본과 함께 산업의 중심이고 대한민국경제의 중심이다. 밥집을 쫓으며 고속도로를 팽 때운 화물운송노동자, 산업현장에서 불을 밝히며 뜬눈으로 꼬박 밤을 새운 노동자들의 유리자갈채금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의 가장 큰 예산이고 버팀목이다. 그런데도 중앙·광역·기초 모든 의원들은 0.01%도 안 되는 노동자 예산을 없애는데 서슴이 없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산업화로 온갖 희생으로 대한민국경제성장을 이루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소비로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려 왔는데 대접은커녕 주인인 노동자를 가장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고도 쫓수가 있으니 선거 때만 되면 낮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들어대면서 표를 구걸하는 모습이 역겹다.

때마침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산업사회의 주인이면서 세수의 원천인 노동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예산을 난도질한 자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천만 노동자의 가족을 더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노동자다.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featuring a woman and a man.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 Includes a quote: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When you think of others besides yourself, won't you be more considerate and respectful to each other?).